

10월 온라인쇼핑 거래액 20조원 넘어

임시공휴일 지정 등 영향으로 여행·교통서비스 29% ↑

지난 10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1년 전보다 12%가량 늘면서 20조원을 넘었다. 특히 임시공휴일 지정 등의 영향으로 여행·교통서비스가 28.6% 증가했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2023년 10월 온라인쇼핑 동향'을 보면 10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0조905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1.8% 늘었다. 이는 지난해 8월(15.9%) 이후 1년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상품군별로 보면 컴퓨터 및 주변기기(-4.9%) 등에서 감소했으나, 여

행 및 교통서비스(4666억원·28.6%), 음·식료품(3348억원·15.6%), 이쿠폰서비스(2935억원·48.9%) 등에서 증가했다.

특히 여행 및 교통서비스에서 거래액 증가폭이 가장 컸는데, 지난 10월 추석 연휴에 이은 임시공휴일 지정 등으로 외부활동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상품군별 거래액 구성비는 음·식료품(12.3%), 음식서비스(11.0%), 여행 및 교통서비스(10.5%) 순으로 높았다.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쇼핑

은 전년보다 10.0% 증가한 14조718억원을 기록했다.

모바일쇼핑은 상품군 가운데 컴퓨터 및 주변기기(-4.8%) 등에서 줄었지만 음·식료품(17.7%), 여행 및 교통서비스(20.5%), 이쿠폰서비스(31.8%) 등에서 늘었다.

모바일쇼핑 거래액 구성비는 음식서비스(14.7%), 음 식료품(12.7%), 의복(10.3%) 순으로 높았다.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의 비중은 음식서비스(98.2%)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 아동 유아용품(82.0%), 예완용품

(81.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했을 때, 패션용품 및 액세서리(3.2%포인트(p)) 등에서 증가했고, 자동차 및 자동차용품(-20.6%p), 이쿠폰서비스(-9.7%p) 등에서 감소했다.

취급상품 범위별로 보면 종합몰의 거래액은 전년보다 8.7% 증가한 12조2972억원을, 전문몰은 17.0% 증가한 7조7933억원을 기록했다.

운영형태별로는 온라인몰의 거래액은 10.2% 증가한 15조1733억원으로, 온·오프라인병행몰은 16.9% 증가한 4조9172억원으로 집계됐다.

소매관매역 중 서비스를 제외한 온라인쇼핑 상품 거래액의 비중은 26.8%로 나타났다. /뉴스

양종철 전북대 교수, 법무부장관상

범죄피해자 보호와 인권향상에 기여



전북대학교 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양종철 교수가 2023년 '범죄피해자 인권대회'에서 법무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소장으로서 성폭력 피해아동과 보호자를 위한 직접 심리상담 및 전북대병원 연계 진료 등을 통해 범죄피해자들의 심리지원과 인권보호에 크게 기여했다.

전주지방검찰청 형의지원위원, 광주고등법원 전주부 조정위원, 법원행정처 전문심리위원으로도 활동하며 의학지문, 분쟁조정, 전문자료 제공 등을 통해 범죄피해자들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그는 의사들이 추천하는 불안장애 '명의로 선정된 바 있으며 대한불안·의학회 학술상 한국정신분석 학회상을 수상했다.

양종철 교수는 '전북대병원 구성원 모두 사회공헌과 상생협력을 실천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이번 수상 또한 범죄피해를 입은 분들과 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려 피해자 보호와 인권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봉사를 실천해준 관계 직원들의 성원이 모아진 결과'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농협 정읍시지부

범농협 사회공헌상 수상

농협 정읍시지부(지부장 이재연)는 2023년 4분기 범농협 사회공헌 사업 추진 우수사무소로 선정돼 지난 1일 농협중앙회 본관 대강당에서 사회공헌상을 수상했다.

범농협 사회공헌상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농협, 행복한 농업·농촌 구현을 위해 농협중앙회·농협금융지주·농협경제지주와 전국 농·축협 1,111개소 모든 계열사를 대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친 사무소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농협 정읍시지부는 2023년 정읍시 '찾아가는 농업인 100세 버스 사업'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정읍농협 발대식 및 사업개시와 아울러 신태안농협, 화도현농협에 사업을 실시해 관내 농업인 조합원의 복지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정읍시 '찾아가는 농업인 100세 버스 사업'은 정읍시 정읍안병원, 전북과학대학교, 정읍시자원봉사센터, 정읍남매안경원, 정읍시농·축협, 농협중앙회가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복지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촌지역에 찾아가 의료지원, 등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구현하는 농업인 실익 지원사업이다. /정유=김대환 기자

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전문아파트 화재보험료 할인 혜택 받으세요”

'전기안전인증' 특등급시 아파트종합보험 7% 할인 적용

앞으로 전기안전(건물) 인증을 받은 아파트는 화재보험료를 최대 7%까지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이달부터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

지현)의 전기안전(건물) 인증 '특등급'을 부여받은 아파트에 대해 DB손해보험 아파트종합보험 가입시 아파트 단지별 배상책임손해 담보부분이

7%까지 할인된다.

'전기안전(건물) 인증'은 아파트 등 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기사고로부터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전기시설의 안전성·효율성·편리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안전관리 수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번 전기시설의 안전 등급에 따라 화재보험의 보험료를 할인 적용해 주는 제도는 작년 12월 한국전기안전공사와 DB손해보험이 맺은 '전기안전관리-손해보험제도 연계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다.

한국전기안전공사 박지현 사장은 "전기안전관리와 손해보험제도의 연계로 전기안전 수준의 질적 향상이 보험료 할인과 건축물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업무수행 중인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들.

(사진=한국전기안전공사 제공)

하림, 프레시마켓 연 매출 12억 돌파기념 이벤트 진행

종합식품기업 (주)하림(대표이사 정호석)이 본사 내 위치한 프레시마켓 연 매출액 12억 돌파를 기념하여 '행운권 추첨 이벤트'를 진행 중이라고 4일 밝혔다.

프레시마켓은 임직원뿐만 아니라 하림 견학 프로그램인 HCR투어 등 본사에 직접 방문한 고객들에게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이벤트는 한 해 동안 프레시마켓에 방문해주신 임직원과 HCR투어 고객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마련됐으며, 마켓 구매 금액 3만 원 당 응모



권 1매가 지급된다.

더불어 3만 원 이상 제품을 구매할 경우 육수를 5만 원 이상 구매할 경우 신선 삼계탕을 지급하는 증정 이벤트도 함께 진행 중이다.

이달 28일까지 진행되는 이벤트에서는 응모권을 작성한 고객들 중 추첨을 통해 △1등 김치냉장고(1명) △2등 스마트TV 42인치(1명) △3등 스마트워치(4명) △4등 에어프라이어(6명) △5등 종이리 마사지기(8명)를 6등에서 9등(80명)에게는 하림 선물세트를 증정한다.

당첨자는 오는 27일 문자메시지로 개별 연락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HCR투어를 방문한 견학객은 "투어 후 용가리치킨, 치킨니겟 등 다양한 인기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말했다.

/역산=이재춘 기자

농식품부산물 생활용 제도 기반 마련

농진청, 5일 용산서 업체 대상 규제·제도개선 간담회 열어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농식품 부산물 재활용 업체들을 대상으로 5일 서울 용산에서 '농식품부산물 재활용(업사이클링) 규제·제도개선 간담회'를 연다.

농식품 부산물 재활용이란 그동안 비료, 사료로 사용(다운사이클링)되거나 폐기 처리되던 농식품부산물을 식품, 기능성 소재, 생활용품 등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부산물 재활용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늘고 있어 관

련 제도적 기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간담회는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유레카 프로젝트 중 하나인 농식품부산물 재활용(업사이클링) 연구의 일환으로 마련된다. 아울러 농식품 부산물 발생과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소재 산업화를 위한 기반 기술 개발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날 농식품부산물 재활용 업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활용 사례 중심 지원사업·재활용 환경성 평가 제도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옥기 기자

송호석 전북환경청장,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 상황 점검

송호석 전북지방환경청장은 4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된 전주 만경강 중류 현장을 찾아 방역 조치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노력을 격려했다.

송 청장은 "철새가 잔류하는 3월까지 AI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긴장을 늦추지 말고 신속한 방역 조치를 통해 가금농가 이전에 힘



써 줄 것"을 부탁했다. /김옥기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